

## 晩年思想을 통해 살펴본 陳獨秀의 “세계화 (Globalization)” 인식

이 준 태  
경희대학교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西歐思想으로서 民主主義와 社會主義에 대한 인식 | 참고문헌<br>中文抄錄 |
| III. 晩年思想으로서 民主主義와 世界化에 대한 인식 |              |

Key words(중심용어): 陳獨秀(Chen, Duxiu), 민주주의(Democracy), 사회주의(Socialism), 파시즘(Fasism), 민족주의(Nationalism), 세계화 (Globalize)

### 국 문 요 약

진독수는 신문화운동을 통해 중국에 서구 민주주의를 도입하였고, 5.4운동 이후에는 믿음을 주었던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적 태도로 인해 실망하고, 다시 소련을 모델로한 새로운 국가 형태를 모색하여 중국에 마르크스주의를 도입하고 소개하였다. 중국공산당 창당과 함께 초대공산당 서기장이라는 현실 정치인으로 역할을 하는 등 20세기초 중국의 국난의 상황에서 구원을 위해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현실 정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학자적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독수는 중국이 처한 현실 그리고 현실정치 속에서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 등을 직시하고 그가 생애를 통해 변한 것 같으면서도 항상 그의 의식의 세계를 지배하였던 것은 바로 민주주의 사상이었다. 중국의 봉건주의, 제국주의 모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나타난 세계 국가들의 갈등 등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각국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진정한 세계평화는 바로 각국이 민주주의를 실천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당시로는 매우 선진적이고 선견적인 주장을 하였다.

### I. 서론

陳獨秀의 生涯와 思想의 變化는 그가 中國共產黨 初代 書記長이라는 中國共產黨史에 미친 선구자적 역할 때문에 일찍부터 연구과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陳獨秀의 新文化運動期에 있어서의 계몽적 지식인으로서의 역할과 중국공산당사에 미친 역할은 그후 中國의 정치적 변

화와 관련하여 중국 現代 政治思想史에 있어서 부정적 견지에서 과소 평가되거나, 정당한 평가가 결여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sup>1)</sup>

그리고 기왕의 진독수 사상의 연구 성과를 보면 대부분이 5.4 신문문화 운동시기에서부터 중국공산당 창당 과정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사상의 전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서구식 민주주의자에서 5.4운동 후 마르크스주의자로 변화하면서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거 無產者 즉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社會主義 國家를 이상으로 생각하고 中國 共產黨을 창설하고 또한 그 당의 書記長으로서 정치적 투쟁의 과정이 그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그의 전 생애는 評傳 제목으로 『終身的反對派』<sup>2)</sup> 라는 연구 성과물이 나올 만큼 그는 생애의 마지막까지도 그가 살았던 시대 상황만큼이나 복잡다기한 인물로서 사상의 굴절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의 이러한 사상의 굴절은 그가 삶의 晩年에 제기하였던 주장들, 즉 정치형태면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적 면에서 사회주의라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주장함으로써, 민주주의는 부르조아 계급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되고 또한 民主主義 없이 대중 정치세력을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림으로서 당시로는 놀라운 사상을 아주 적절하게 전개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구민주주의자에서 마르크스주의로 그리고 다시 西歐 民主主義<sup>3)</sup>를 정치 제도면에서 신봉하게 되었다는 평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두 이데올로기에 의한 냉전의 시대 상황으로 인해 분명 그의 이러한 변화는 ‘사상적 굴절’이라고 파악되어 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적 굴절’ 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陳獨秀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은 분명 「‘民’이 정치의 ‘主體」인 ‘民主’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굴절’의 실제적 의미는 그가 채택하였던 정치모델의 주체, 즉 ‘서구유럽 국가식의 민주주의’ 나 아니면 ‘러시아식 사회주의가 지향한 민주주의’냐의 차이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대를 관통한 그의 ‘民主觀’이 20세기 후반 들어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제시되고 있는 ‘세계화 (Globalize)’ 실현의 필요한 조건들과 매우 상충함을 발견하고 그의 후기 사상으로 ‘세계화’의 핵심요건으로서 민주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中國에서는 1976년 제11기 三中全會 이후 四人幫이 실각되고 鄧小平 체제가 재등장하면서 實事求是의 기치 아래 陳獨秀등 역사인물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 陳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 슬로건과 상호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陳獨秀에 대한 객관적 연구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그의 反封建의 思想解放運動에 있어서 활동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견지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中國共產黨의 陳獨秀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배경은 대체로 그가 중국공산당 書記長 시절과 1927년 國共合作의 실패로 인해 중국공산당 書記長職을 박탈당한 이후의 활동에 대한 평가로 부터 시작된다. 즉 그는 書記長 시절 社會階級の 역할을 평가함에 있어서 農民階級에 대한 과소 평가와 함께 民族革命 과정 속에서 資產階級の 입장을 당내에 반영하였다는 이유로 右派機會主義者라는 평가와 함께 공산당 탈당이후 左翼反對黨의 활동으로 인해 清算主義者 또는 트로츠키파라는 평가를 받게된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면에서 이유를 찾는다면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스탈린주의 추종자들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났기 때문일 것이다.

鄭守和, 「陳獨秀和新青年」, 『歷史研究』, 1977년 5期, 『評論選編』 p. 256, 鄧野, 「時論五四後期陳獨秀世界觀的變化」, 『近代史研究』 1984년 4期, 『評論選編』, p. 379.

2) 朱文華, 『終身的反對派-陳獨秀評傳-』, 青島出版社, 1997. 참조.

3) 마르크스주의자가 된 이후 부르조아 民主主義라는 표현으로 프롤레타리아에 대응하는 의미로서 사용하였다.

## Ⅱ. 서구사상으로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

일반적으로 陳獨秀는 중국에 서구 사상으로서 ‘民主主義’를 도입하여 소개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평가되어 지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국에 민주주의의 명성을 가장 드높인 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 일찍이 신문화운동 당시 ‘德先生과 賽先生’이라는 닉네임으로 중국에 ‘民主主義와 科學’을 소개한 장본인이 바로 陳獨秀이다. 그는 신문화운동 당시 「하늘을 요동치게 한 대죄 (滔天的大罪)」<sup>4)</sup>를 범하면서 까지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민주주의와 과학’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가 1918 『新青年』誌에 대한 비판 - 滔天的大罪- 에 대해 『新青年』에 발표하였던 「『新青年』罪案之答辯書」를 통해,

“우리는 현재 두 분 선생(德先生과 賽先生)만이 중국의 정치상, 도덕상, 학술상, 사상 상의 일체의 암흑에서 구원해줄 것이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가 두 분 선생을 옹호하기 때문에 일체의 정부의 압박과 사회적 공격에 대해 목숨걸고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sup>5)</sup>

고 하며 과학과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의 신문화운동 당시 민주관과 과학관은 일반적으로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民主主義’ 사상은 신문화운동에서부터 만년까지 3단계에 걸친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즉 첫째는 프랑스, 두번째는 소비에트 러시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과 미국을 본보기로 한 민주주의 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기왕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그의 민주주의 사상에 대해 프랑스 혁명 정신의 민주관과 이후 중국 공산당 초대 서기장의 이력으로 중국에 맑시즘 도입에 대한 역할 만이 부각되어져 만년의 민주주의 사상은 그의 시대적 평가와 함께 세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서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프랑스의 혁명정신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믿음과 이어진 허망한 좌절, 그리고 그 좌절에서 희망을 주었던 소비에트의 선택.

진독수는 당시 다른 사상가들이 중국의 전통으로부터 서구의 민주사상의 의미를 이끌어내려던 것과는 다르게 그는 民視民聽, 民貴君輕, 民爲邦本과 같은 유교의 民本-民主- 사상에 대해 “일체 아무가치가 없는 말들”라고 하며 “소위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라는 말은 모두 군주의 사직 (즉 임금의 조상이 남겨준 가산)의 기준에 불과하며”, “또한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民治主義와는 절대로 다른 것이다”<sup>6)</sup>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사상은 근세문명에서 시작되었으며 근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각국의 국민들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青年雜誌』<sup>7)</sup>第1卷 第1號에 발표한 「法蘭西人與近世文明」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 글에서 그는

“유럽의 문명은 모두 유럽 인민들의 공헌으로 이룩된 것이며 그 선봉에 프랑스 국민들이 있었다. 근세문명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옛것을 변화시켜 사회를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4) 이 표현은 陳獨秀가 당시 『新青年』誌 에 대한 世間の 비난을 반박하여 『新青年』第6卷第1號 (1919年1月15日)에 실었던 「『新青年』罪案之答辯書」에서 언급한 것임.

5) 陳獨秀, 「『新青年』罪案之答辯書」, 『新青年』第6卷第1號 (1919年1月15日), 『陳獨秀著作選』第1卷, 上海人民出版社, 1993, p. 443, (이하 『著作選』으로 명기). 본고에서 인용할 글의 출전은 모두 『著作選』에서 발췌된 것인데 『著作選』을 보게 되면 그 원전을 추적할 수 있으나 본 고에서는 인용문의 원전과 집필 년도도 같이 명시하고 다만 본고에서 인용한 출전은 『著作選』의 페이지를 명시하기로 하겠다.

6) 陳獨秀, 「再質問東方雜誌記者」, 『新青年』第6卷第2號 (1919. 2. 15), 『著作選』第1卷, p. 479.

7) 1916년부터 발간되는 第2卷 第1號부터는 『新青年』으로 바뀜.

것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인권설’이고 둘째는 ‘진화론’이며 셋째는 ‘사회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프랑스 혁명 전 유럽의 국가들도 (오늘의 중국처럼) 임금과 귀족의 특권 위에 존재하는 것은 없었으며, 또한 오로지 소수의 군주와 귀족들만이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인격체였으며 대다수의 인민들의 특권층의 노예와 같은 존재로서 하고 자유 권리가 박탈되었다. 1789년 프랑스의 라파예르(La Fayette)는 ‘인권선언’에서 ‘유럽 사람들이 만약 꿈에서 깨어나고 술에서 깨어나면 비로소 인권의 고귀함을 알게되어 군중이 모두 일어나 군주와 귀족들에게 저항하여 비로소 열국의 현장을 수립하게 되었다’ 8)

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처럼 진독수의 초기 민주주의 사상은 프랑스 人權說과 平等, 博愛, 自由의 이상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민주주의 사상은 5.4운동을 겪으면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즉 ‘보편적 인권설:서구식 민주주의’에서 ‘평민주의:사회주의’로의 전환이다. 그 이유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회의에서 그동안 그의 민주주의 사상의 근원과도 같았던 프랑스와 영국 (그는 일찍이 이들 국가를 ‘公理’를 대표하는 나라라고 믿어왔다)이 보여주었던 제국주의의 속성에 크나큰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이러한 사상의 전환을 몇 편의 논문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번 유럽회의 -파리강화회의-에서 강권을 말하면서 공리를 말하지 않은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 각국은 강권을 이용하여 그들의 런던밀약을 옹호하였고, 또한 중국의 청도를 일본에 넘겨줌으로써 그들의 이익과 교환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공리를 따르지 않은 행동들을 보이고 있으며 ... 우리는 산동문제 때문에 반드시 국내외의 여러 세력과 저항할 각오를 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각오에는 반드시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첫째는 ‘강력히 공리를 옹호하여야 하며’ 둘째는 ‘인민이 정부를 정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9)

고 주장하여 프랑스와 영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공격과 아울러 ‘인민정부’의 필요성도 역설하였다.

진독수의 사회혁명론으로의 노선 채택은 소련식의 ‘民主’로 프랑스식의 ‘民主’를 대체한 것이었으며, 마침 당시에 중국을 방문하였던 두이와 루소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진독수의 이러한 노선의 변화는 『新青年』에 발표한 「實行民治의基礎」를 통해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이 글에서 말하기를,

“두이 박사는 民治主義의 핵심내용을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政治的 民治主義로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으로 대의제를 통해 민의를 표현하는 것이고, 둘째는 民權的 民治主義인데 이는 인민의 권리를 중히 여기는 것으로 예컨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신앙의 자유, 거주 자유를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社會的 民治主義로서 평등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불평등한 계급을 타파하고, 불평등한 사상을 제거하며, 인격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이른다. 넷째는 生計的 民治主義로서 불평등한 생계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여 빈부의 계급차이를 공평하게 하는 것을 이른다. 위 네 가지 사항 중 전자 두 가지는 정치적인 측면이라면 후자의 두 가지는 사회경제적 민치주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민치는 두이 박사가 제시한 4가지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와 사회경제 방면에서의 민치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경제사회적 측면에서의 민치에 더욱 집중하여야 한다. 나는 사회경제적 시책의 대부분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보지 않고는 정치적인 큰문제의 해결은 있을 수 없으므로 사회경제문제는 간접적으로 정치분야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

8) 陳獨秀, 「法蘭西人與近世文明」, 『青年雜誌』第1卷第1號 (1915. 9. 15), 『著作選』第1卷, pp. 136~ 137.

9) 陳獨秀, 「山東問題與國民覺悟」, 『每周評論』第23號 (1919. 5. 26), 『著作選』第2卷, pp. 17~18.

10) 陳獨秀, 「實行民治的基礎」, 『新青年』第7卷第1號 (1919. 12. 1), 『著作選』第2卷, pp. 28~29.

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진독수는 두이를 통해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적 내용을 모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또한 한발 더 나아가 주장하기를,

“나는 혁명적 수단을 사용하여 노동자계급 (즉 생산계급)의 국가를 건설하여, 일체의 대내외의 수탈적 정치 법률을 타파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제일 중요한 사안이고 생각한다. ... 현재 많은 사람들이 ‘데모크라시’와 ‘자유’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무산노동자계급의 독재정치를 반대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 첫째 경제제도를 혁명하지 않고 대다수 노동자계급이 겪고 있는 곤경과 부자유는 ‘데모크라시’에 부합하는가 하지 않는가? 둘째 경제제도의 혁명 이후 대다수의 노동자 계급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왜 ‘데모크라시’에 부합되지 않는가? 그리고 나뉘어 질 수 밖에 없는 저자산가들은 왜 노동하러 가지 않는가? 노동하지 않는 자산가들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사회에는 모두 무산노동자만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도 어떤 독재나 독재가 아니냐를 따질 것인가?”<sup>11)</sup>

하며 계급 문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루소가 「中國人到自由之路」를 통해 주장한 내용을 언급하여

“중국의 정치 개혁은 결코 몇 년 내에 서구의 데모크라시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 그러한 정도(서구 데모크라시의 수준)에 이르는데 가장 좋은 과정은 러시아 공산당 독재정치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은)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지식을 빠른 시간 내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오염되지 않은 자본주의의 색채를 띤 실업이 발달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소련의 방식이 유일한 방안이다”<sup>12)</sup>

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을 통해 당시 그의 심중을 살펴볼 수 있는데, 즉 그가 소련을 모델로 제시한 것은 ‘자유인권’에 대한 그의 기본 생각을 버린 것이 아니며, 또한 ‘서구식 데모크라시’와 통할 수 있는 과도기적인 단계이면서도 보다 폭넓고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단계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진독수가 일찍이 프랑스의 보편인권설로 군주귀족의 봉건적 특권에 대해 저항을 주장하였는데, 이 시기에 그는 아마도 민주주의에 대한 추상적인 이념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소비에트정부가 대다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정치로 소수의 노동하지 않는 부르조아의 자유에 대항하는 것을 보면서도 민주적인 사회경제적 측면에 집중하였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스탈린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치를 내걸고 당내외 인사들에 대해 잔혹하게 폭행을 저지르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민주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의 범위 등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었고 다시 그의 시야를 영미식의 민주에 관심을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1930년대 陳獨秀는 그가 설립한 中國共產黨으로 축출당하는가 하면 또 국민당에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그로 하여금 민주주의 문제에 더욱 몰두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그 이후 그는 민주에 대해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하게되었다. 그의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볼 수 있는 글이 바로 知人 西流에게 보낸 편지인 「給西流的信」인데 그는 여기에서,

“나는 러시아에 대한 20년간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6-7년간 심사숙고하였고 비로소 오늘의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一) 대중정권이 대중민주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대중민주를 실현할 수

11) 同上書, p. 30.

12) 同上書, p. 32.

없게 되면 바로 대중정권 혹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독재가 되게 되어, 스탈린식의 극소수인원에 의한 KGB(비밀경찰) 정치체제가 되어 버리게 된다. (二) 대중민주를 부르조아 계급의 민주로 대체하는 것은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영국 · 프랑스 · 미국의 민주를 대신하여 독일과 러시아의 독재를 채택한다면 이는 퇴보적인 것이다. (三) 민주는 본래 한 개의 추상명사 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부르조아 계급의 민주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민주는 내용상에 있어서 대체로 상통하며 다만 그 실시의 범위의 좁고 넓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四) 민주에 의회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의회제도가 민주를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의회제도를 배척하는 것은 민주를 배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비에트 러시아가 타락한 최대 원인이 되었다. 소비에트제에 만일 민주가 없다면 자산계급의 형식적 민주와 비교하여 더 못하다고 할 것이다. (五) 민주는 본래 고대 희랍 로마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 내일 모래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 피압박 대중이 소수의 특권층에 저항하게 하는 기치이다. 이는 어떤 특정한 시기의 특수한 역사현상 만도 아니고 시간이 흘러 일정한 시대에 자산계급 통치형식만을 이르는 것은 아니다. 만약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민주와 부르조아 계급 민주가 같지 않다고 말한다면 이는 민주에 대한 기본내용(법원의 동의 없는 임의의 체포와 살인권, 정부에 대한 반대, 사상 · 출판 · 파업 · 선거의 자유권리 등) 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六) 근대 민주제는 기실 부르조아 계급에게서만 환영을 받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수천만 민중이 피로서 5~600년을 투쟁하고서 비로소 획득한 것으로 과학, 근대민주제, 사회주의는 바로 근대 인류사회가 획득한 3가지 보물과도 같은 것이다. 불행히도 10월 혁명이래 민주제와 부르조아 계급통치를 동일시하여 배척하면서, 독재제도를 천상으로 그리고 민주를 모욕하여 개똥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황망한 상황이 발생하였던 이유는 10월 혁명의 권위를 따라 전 세계를 정복하고자 채택한 첫 번째가 바로 뮌헨이고 두 번째가 히틀러인데 가장 먼저 독재를 주장한 본토는 바로 소련으로 갖은 악행을 다하였는데, 유럽 오대 강국 중 3개국에 독재를 자행하였다”<sup>13)</sup>

고 서술하고 있다.

진독수는 이상과 같이 부르조아 계급의 민주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민주이든 ‘민주’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독재’를 주장하면서 뮌헨 정부와 히틀러 정부와 아울러 소비에트의 스탈린 정부를 타도해야 할 3대 독재 정부로 지목하였다.

### Ⅲ. 晩年思想으로서 民主主義와 世界化<sup>14)</sup>에 대한 인식

진독수는 그의 만년의 민주 사상을 1939년 국민당 감옥에서 출옥한 이후 발표한 여러 글들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인류역사 속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사, 두 번째는 민주와 사회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 세 번째는 영미식 민주와 소련 이태리 독일의 파시스트제와의 차이, 넷째는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주의에서 민주주의 절대적 필요성 등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人類歷史의 民主的 發展史로의 해석

1936년 진독수는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대한 그의 연구결과를 정중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즉 인류의 역사는 민주적 발전의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하였다. 민주주의는 사회가 발전하느냐 후퇴하느냐의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본래 민주주의 개념에는

13) 陳獨秀, 「給西流的信」(1940. 9), 『陳獨秀最後論文和書信』, 『著作選』第3卷, pp. 553~554

14) 陳獨秀의 원문에는 ‘國際化’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나, 그가 지향하는 의미를 현대적으로 보통 명사화되었고 시대성을 반영시킨다는 차원에서 ‘세계화’로 표기함.

계급성이라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또한 부르조아 계급의 전유물도 아니라고 하였다. 아울러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에 대해 계급성을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배신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는 인류사회 발전의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며, 또한 인류가 정치조직을 형성한 이래 정치조직이 소멸되어 지는 지경에서도, 어느 시대(그리스 로마 및 근대 이후 장래에 까지)를 막론하고 다수 계급이 절대 권력에 저항하는 기치로 작용하는 것이다.”<sup>15)</sup>

고 하였다. 한편 「給連根之信」이라는 글에서 진독수는,

“민주에 대한 잘못된 편견의 원인은 첫째 부르조아 계급 민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주정치를 부르조아 계급의 정치방식이고 위선이며 사기라고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진정한 내용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법원외의 기관의 불체포권, 참정권이 없으며 조세납부의 의무도 없으며,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정부는 어떠한 정세권도 가질 수 없으며, 정부에 대한 반대 정당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는 것, 노동자의 파업권, 농민의 자유로운 경작 재배권, 사상 종교의 자유 등이 모두가 대중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모두는 13세기 이후 대중들이 칠백여년의 시간 동안 피흘려 획득한 것인데 오늘날 소위 부르조아 계급 민주라고 하여 러시아, 독일, 이태리에서는 퇴출된 사항들이다. 그러므로 소위 프롤레타리아 계급적 민주정치와 부르조아 계급적 민주는 그 시행의 범위의 좁고 넓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내용 상에서 본다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민주와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sup>16)</sup>

고하며 민주정치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이어서

“대중민주를 부르조아 계급 민주로 대체하는 것은 지극히 진보적인 것으로 본다. 즉 영미식의 민주주의를 버리고 러시아, 독일, 이태리 식의 독재정치를 채택하는 것은 대단히 퇴보적인 것이다.”<sup>17)</sup>

고 하면서 대중민주주의의 핵심내용에 반드시 부르조아 계급 민주주의의 내용 포함하여 그 실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참정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20세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참정권의 확대 (자산계급에서 성별에 차이없이 부여) 등도 언급하면서 모든 인민의 동등한 정치참여 권리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도, 국가는 반드시 각 정당과 그 경쟁자들에게 동등한 선전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정치성 기부 등의 요인으로 그 정치적 영향력을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부르조아 계급 민주주의의 기본내용에 위배됨을 제시하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대중민주’든 ‘부르조아 계급 민주’가 되었든 완전한 민주주의 형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정치는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민주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 2. 民主主義와 社會主義의 차이점

陳獨秀 晩年 사상의 특징은 위에서 언급되었던 영미식 민주주의(부르조아 계급 민주주의)에

15) 陳獨秀, 「我的根本意見」(1940. 11. 28), 『陳獨秀最後論文和書信』, 『著作選』第3卷, p.560.

16) 陳獨秀, 「給連根之信」(1940. 7. 31), 『陳獨秀最後論文和書信』, 『著作選』第3卷, p. 548

17) 同上書, p. 549

대한 인식상의 재정립과 함께 오사운동 이후로 급속히 수용하였던 사회주의에 대한 재인식 문제를 중심 키워드 살펴볼 수 있다. 진독수는 「我的根本見解」라는 일문을 통해 다시 그의 사회주의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는 이 글에서,

“정치상의 민주주의와 경제상의 사회주의는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부르조아 계급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 정당이 자본주의 및 부르조아 계급을 반대한다고 하여 민주주의를 반대하여 최근 각국에서 소위 ‘프롤레타리아 계급 혁명’이 출현하였으나 민주제가 만든 관료제의 소독기능(독재의 제어기능)을 갖추지 않고 있다. 또한 세계에 등장한 스탈린식의 관료정권은 잔혹하고 탐욕스럽고 부패하여 어떠한 사회주의도 건설할 수 없으며 소위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당의 독재는 결과적으로 독재의 지도자로서 불과한 것이다. 독재는 어떠한 경우에 도 잔혹하고 몽매하며 사기와 탐오, 부패한 관료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다.”<sup>18)</sup>

고 주장하며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 만연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허실을 제시하면서 현실 정치 속에서의 ‘사회주의’의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당시 진독수의 소련 정부에 대한 인식은 毛澤東의 생각과 비교할 때도 20년을 앞서는 것이었는데, 당시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트로츠키파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당 정부 역시도 소련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그러한 그의 주장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진독수는

“만약에 스탈린의 죄악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제도와 무관하다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한다면 이것은 즉 10월혁명 이후 소비에트연방의 제도가 민주제의 기본을 담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극히 스탈린 개인의 성정이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매우 유심론적인 해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스탈린의 죄악은 무엇보다도 프롤레타리아 독재제도를 논리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으로 스탈린의 죄상을 추궁할 때, 10월혁명 이래 어떤 핑계도 빌리지 않고 어떻게 비밀경찰 정치를 행하고, 당내외에 다른 정당을 두지 않으며, 사상 · 출판 · 파업 · 선거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등 일체의 비민주적인 독재정치가 가능 하였겠는가? 만약 이러한 민주적인 제도를 회복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스탈린이 견재하게 된다면 ‘독재 마왕’의 오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소련을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이 될 것이다 … 10월 혁명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중 분명한 것은 독재제도가 스탈린을 탄생시킨 것이지, 스탈린이 있음으로 해서 독재제도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sup>19)</sup>

라고 주장하므로써 10월 혁명이래 소련이 추구하여온 프롤레타리아 독재제도의 비민주적인 내용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던 스탈린의 과오에 대해서 사회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비민주성을 지적하였다.

### 3. 英美式 民主制와 러시아 · 독일 · 이태식 파시스트제의 차이점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민주와 파시스트 간의 분명한 한계는 이미 소멸되었는지 혹은 장차 소멸될 것인지 관한 정치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공산주의자들은 영미식 민주제와 파시스트제는 별반 차이가 없는 한 통속으로 보는 시각이었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이들 두 제도에 대해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진독수는 공산주의의 이러한 관점에 대해 사실을 근거로 하나 반박을 가하였는데, 그는

18) 陳獨秀, 「我的根本意見」(1940. 11. 28), 『陳獨秀最後論文和書信』, 『著作選』第3卷, p.560.

19) 陳獨秀, 「給西流的信」(1940. 9), 『陳獨秀最後論文和書信』, 『著作選』第3卷, pp. 554~555



“(민주제와 파시스트제가 한가지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 (一) 정치제도의 실제 상에서 볼 때 민주와 파시스트는 결코 하나로 볼 수 없으며 둘 사이의 차이점은 영원히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二) 만약 그 차이가 없어져 영국 미국 프랑스 등과 같은 나라가 점차로 파시스트화 되어져, 또 정말로 현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독재를 환영하고 민주를 반대하여야 할 것이다. … (四)만약 민주국과 파시스트 사이의 분명한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눈을 분명히 뜨고 아래의 대조표를 보라.

- (甲) 영국과 미국 그리고 패전 전의 프랑스의 민주제
  - (一) 의회선거는 각 정당(정부반대당도 그 속에 포함된다)이 그 선거구에서 각 당이 내세운 정강 등을 연설을 통해 유권자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게 되며 유권자는 그 뜻에 따라 투표를 행사하므로 의회가 개회된 이후에도 (의회 내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게 된다.
  - (二) 법원의 명령없이 임의의 체포나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 (三) 정부의 반대당 심지어는 공산당까지도 공개적으로 존재한다.
  - (四) 사상, 언론, 출판의 자유가 상당하다.
  - (五) 파업자체가 범법행위는 아니다.
- (乙) 러시아-독일-이태리의 파시스트제도 (러시아의 정치제도는 독일과 이태리의 선생님과 같으므로 모두 한가지이다)
  - (一) 소비에트 혹은 국회의 선거는 모두 정당이 지정하며, 회의 시 다만 거수만 할 뿐 논쟁은 없다.
  - (二) 비밀정치경찰은 체포 살인을 할 수 있다.
  - (三) 일국일당으로 다른 정당의 존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 (四) 사상, 언론, 출판은 절대로 부자유롭다.
  - (五) 파업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으며 파업은 곧 범죄이다.”<sup>20)</sup>

고 지적함으로써 당시 중국 공산당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소비에트 러시아의 비민주성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즉 사회주의 국가가 프롤레타리아 계급 혁명의 완성이라는 빌미로 행사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해 ‘독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인류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타도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세계상에 존재하고 있는 영미식의 민주주의를 최상의 선으로 주장하였는데 그는 또 다른 글에서의 지적을 보면,

“정치상에 민주제가 파괴는 과거 중세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며 즉 머지않은 장래에 인류는 가히 공포스러운 재난과 예상할 수조차 없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 현재 독일과 러시아 양국에서는 국가사회주의 및 비밀경찰정치(KGB)제도가 있는데 이태리와 일본은 이를 추종하고 있다. 이는 현대적 종교법정으로서 만약 인류가 발전을 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중세의 종교법정과 비교되는 암흑과 같은 국가사회주의와 비밀경찰정치제도를 타파하여야만 한다. 이 때문에 각 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체의 투쟁(반제국주의 투쟁도 포함하여) 들이 현재의 이 투쟁을 (각국의 개별 사정으로 하여) 다음으로 다음으로 미루거나, 현재의 이 투쟁에 유해한 또 다른 투쟁 역시 매우 반동적이라고 할 것이다. … 이러한 연고로 해서 현재 영국 프랑스 미국 국내의 반전운동도 반동적인 것이며 인도의 독립운동 역시 반동적인 것이다. 민족투쟁이 세계투쟁의 이익을 벗어나는 것도 반동적인 것이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反국가사회주의’ 및 ‘反 비밀경찰 정치제’의 대투쟁은 민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와 독일 간 전쟁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전세계 모든 혁명가들의 수치이다. 만약 다시 실속없이 공담만이 난무하게 된다면 결국 국가사회주의의 승리로 끝날 것이며 이는 또한 더 큰 죄악이 될 것이다.”<sup>21)</sup>

라고 주장하며 만약 독일의 승리고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세계 인류는 최소한 반세기는 암

20) 同上書, pp. 557~558

21) 同上書, p. 553.

혹 속에 살게 될 것이고, 영국 미국 프랑스가 승리하게 된다면 자산계급 민주제는 잘 유지되어 대중 민주주의를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제3세계국가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시켜 오로지 민족 독립을 외치던 당시의 상황에서 당시 세계가 안고 있던 문제를 인류애적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했다는 것은 최소한 반세기를 내다본 대단히 거시적 안목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배타적 민족주의로의 경도를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세계혁명을 우선하였고 아울러 세계혁명이 지향하여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 민주를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결과가 결국 각 민족의 추구하는 이익과 부합한다는 점을 일찍이 진독수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4. 세계화를 위한 중심사상으로서 民主主義와 自由에 대한 평가

진독수의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인식을 통해 당시의 신지식인 그룹 및 혁명지도자들과는 다른 혁명관을 발견할 수 있는데, 즉 진독수는 중국이 당시에 처한 현실 즉 제국주의 국가로 부터의 수탈과 중국의 빈곤한 경제 상황 등의 문제는 비단 중국 한 개 국가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제질서와 환경 속에 파생된 문제로서 그 근본원인은 각 나라의 정치제도에서 민주주의 결여가 그 근본원인으로 보았다. 당시 현실 정치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상당히 이론적이며 몽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한 세기가 채 지나지 않은 작금의 상황을 두고 본다면 대단히 선진적이고 선견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진독수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이러한 국제질서와 중국 혁명과의 관계에 대해 그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는 이 글에서

“우리는 이미 민주국가의 공병장인 미국이 이끄는 반 나치 전쟁에 참가하고 또 우리도 기왕에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동맹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가하였다며 민주주의와 자유를 국민들의 중심사상으로 하여 전투의지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국경제가 낙후하고 또한 역사와 전통이 깊고 아울러 전쟁 중인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제도라는 것이 일시에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지만 기왕에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선택하기로 하였다면,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여 이것을 케케묵은 소리라고 비난하며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결코 닮아서는 않된다. ... 국외투쟁과 관련하여서 (자유민주주의의) 중심국이나 아니냐의 투쟁도 마땅히 민주주의에서부터 출발해야지 민족주의로 출발하여서는 않된다.”<sup>22)</sup>

고 주장하며 지나친 민족주의로 치우쳐서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절대 진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주장하였다.

아울러 당시 국제 환경의 고찰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약소국가의 국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매우 시대를 앞서가는 선견적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구시대적 민족관점 눈 속임 당하여 국제화의 새로운 추세를 보지 못하게 되면 낙후한 민족의 경제 조건으로는 당연히 사회주의는 물론 어떠한 자본주의도 논의할 수 없다. ... 어떠한 민족주의적 영웅도 국제집단주의의 새로운 추세를 거스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압박민족은 새로운 국제화의 대세에 잘 순응하게 되면 (민족의) 전도가 창창하게 될 것이다.”<sup>23)</sup>

22) 陳獨秀, 「戰後世界大勢之輪廓」(1942. 2. 10), 『陳獨秀最後論文和書信』, 『著作選』第3卷, p.589.

23) 同上書. p. 593.

라고 그의 당시 국제상황 하에서 민족주의의 편협함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국제화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끝으로 그의 마지막 정치견해와도 같은 당시의 세계대세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민족화에서 국제집단화로의 전환은 금후 상황의 단순한 국면전환만이 아니라 인류진보의 진정한 요구를 이루어내는 과정이다. (인도) 네루는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의 집단화를 말하는 것으로 대단히 매력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아시아국가의 낙후함의 연장이며 ... 일본이 소위 주장하는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주장은 반드시 배척되어야 되는 환상이다. ... 소위 어떠한 ‘낙후민족’이 스스로 민족정책을 (민족 내부로) 제한을 두면 스스로 고립되게 되며 (민족정책은 사실상 고립정책이다) 어떠한 장래도 보장받을 수 없는 바 소비에트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 과연 소련이 한 개의 ‘진영’을 만들어 세계시장을 외면하고 민주화와 시장화라는 세계조류를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국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의 이방인으로 남아 중국에는 붕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sup>24)</sup>

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참으로 세계의 전망을 최소한 반세기 이상 내다본 선견지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주지하는 바와 같이 90년대 소련의 붕괴는 그의 예언이 맞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 IV. 결 론

中國現代史의 획기적인 기점이 된 1919년 5.4운동의 선구적 지도자로서 평가되고 있는 陳獨秀는 낙후한 중국 구원하겠다는一念으로 中國과 中國民을 위해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의 정열을 바치다 생을 마감한 절대적 민주주의 선봉자 였었다. 또한 生涯나 革命活動 속에서 주장한 바가 政治形態 上에서나 서구 民主主義나 社會主義를 표방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기질적으로 個人의 人格과 自由를 변함없이 존중한 민주주의 선봉자였으며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思想家 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5.4운동 전에는 서구식 민주주의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절대적 선봉자에서 5.4 운동 후에는 사회주의의 전도사 이자 공산당 창당을 이루어내는 정치가로서의 활동 그리고 중국에는 위의 두 가지 경력으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는 비운의 시간을 겪고 난 후 그는 최후에는 정치적으로는 부르조아적 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사회주의의 채택을 그의 최후 견해로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시각에서 그의 사상에 관심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은 첫째 그가 시대 상황에 따라 서로 상반된 역사 평가를 받게 되는 이데올로기를 정치사상으로 채택하고 추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상의 중심으로 변치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民主主義’라는 것이다. 둘째는 그의 이러한 민주주의 사상을 단순한 국내 정치의 안목에서 제한한 것이 아니라 당시 중국의 국난의 상황 그리고 세계 대전의 발생 원인의 근본 원인으로 파악하면서, 후진국은 후진국 데로 선진국은 선진국 데로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을 통해서만이 세계 만민이 모두 행복해줄 수 있다는 점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주장은 한 세기를 건너뛴 오늘의 상황에서 지나친 민족주의의 아집으로 진정한 세계화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세상을 떠나기 전 그가 펼쳐 전달하고자 했던 晩年 思想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4) 同上書. pp. 595~596

陳獨秀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혁명과정, 다시 말해 傳統思想에 대한 반동과 새로운 정치이념으로서의 서구 民主主義 제도로 信奉과 그 挫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그로 인한 晩年の 역경 등의 과정을 통해서 만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의 思想은 분명히 再照明되어야 하나 아직도 정치적 이유로 인해 그의 재평가가 결여될 수 밖에 없는 中國의 現實은 객관화와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정신면에서 오히려 陳獨秀와 그가 활동한 시대보다도 오히려 더 뒤져 있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칼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 참 고 문 헌

- Thomas C. kuo, 權寧彬 역 『陳獨秀 評傳』, 민음사, 1985.
- 체스타 탄, 閔斗基 역, 『中國現代政治思想史』, 知識産業社, 1977.
- 丸山松幸, 金正화 譯, 『五四 運動의 思想史』, 일월서각, 1983.
- 裴永東, 「陳獨秀의 民主政治思想」, 『中國史研究』 제31집, 2004. 8.
- 허 증, 「陳獨秀의 民主國家觀 -신문 화운동기를 전후하여(1914년~1919년)-」, 『大邱史學』 제52집.
- 任建樹·張統模·吳信忠 編, 『陳獨秀著作選』 第一·二·三卷, 上海人民出版社, 1993.
- 鄭學稼, 『陳獨秀傳』 上.下, 臺北, 時報文化出版企業有限公司, 1989.
- 王樹諦 外編, 『陳獨秀評論選編』 上.下, 河南人民出版社, 1982.
- 唐寶林·林茂生, 『陳獨秀年譜』, 上海人民出版社, 1988.
- 張寶明·劉雲飛, 『陳獨秀的最後十年』, 河南人民出版社, 2000.

## 通过晚年思想分析陈独秀的'全球化(Globalize)'认识

李俊泰\*

陈独秀通过新文化运动把西欧民主主义导入中国，五四运动之后，因为受原本相信的西方列强帝国主义性态度的影响而感到失望，之后接受苏联模式重新摸索新国家形式把马克思主义导入中国并且在中国传播，他参与了中国共产党建党并且担任中国共产党秘书长职务，20世纪初期担起了中国国难状态下救国运动的责任，但是面对现实政治局面缺乏能动性。通过这一系列过程陈独秀直视到了中国现实政治中意识形态的虚构性，同时认识到和他变动的生涯有所不同的永远是他的思想意识中只有民主主义才能支配世界，中国的封建主义和帝国主义国家的矛盾以及第二次世界大战漩涡中出现的国家之间的纠葛等，他认识到所有问题的根源便是真正的民主主义没有在各国形成，并且主张真正的世界和平是各国民主主义得到实践的同时，才能形成对当时社会来讲非常重要的先进性和先见性。

■ 논문접수일 : 2007년 10월 29일, 논문심사일 : 2007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07년 11월 22일